

인문학 연구소 소식

2024년 여름

Institute of Humanities Newsletter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4년 6월 전 화 051-510-1669

발행인 이효석(소장) 편집인 서민정(부소장)

디자인/제작 만수출판사 전 화 051-513-4042

2024년
여름호

Contents

01 | 여는 말

02 | 연구소 활동

03 | 출판 소식

04 | 논문 소개

01 | 여는 말

우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국내외 인문학 연구의 거점연구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연구소가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이유도 학교안과 밖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인문학자와 연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자신의 소견을 발언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월과 2월에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심포지움과 간담회는 인문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우리 연구소의 의지로 기획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와의 위치성 문제와 결부시켜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 내 <세계문학과 트 랜스글로시아 연구팀>의 연구 목표가 제주대학교 인문사회 연구 소의 지역문학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대 김동윤 교수의 「제국의 폭력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세 섬의 상상력」, 광운대 고명철 교수의 「현기영과 제주, '새로운 세계문학」, 부산대 김용규 교수의 「존재로서의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가능성」은 격변의 시대를 통과한 문학에서도 지역과 세계 사이에 중첩 되고 간섭된 필연적 층위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6월 동구쪽방상담소와 공동 개최한 <희망의 인문학>은 우리 인문학 연소가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학문이 엘리트의 담론이 아니라 일반대중 및 사회와 연대하는 언어가 되기 위해 늘 주변의 존재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

특히 쪽방거주민과 독거노인 등 사회의 주변에 존재하는 세대와 개인들에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기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남다를 것이다. <기술변화와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희망의 인문학 강좌는 디지털 빈곤 (digital poverty)의 문제, 포스트휴먼과 장수의 문제, 언어적 변화와 소통의 문제 등 다양한 소주제로 동구 주민들을 찾아갔다. 디지털 빈곤이 단순히 전자 기기와 같은 물적 소유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한 개인의 삶의 질, 나아가 행복과 고통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 참석한 시민들은 공감했으며 이론적으로 가능해진 장수가 인간의 무조건적 목표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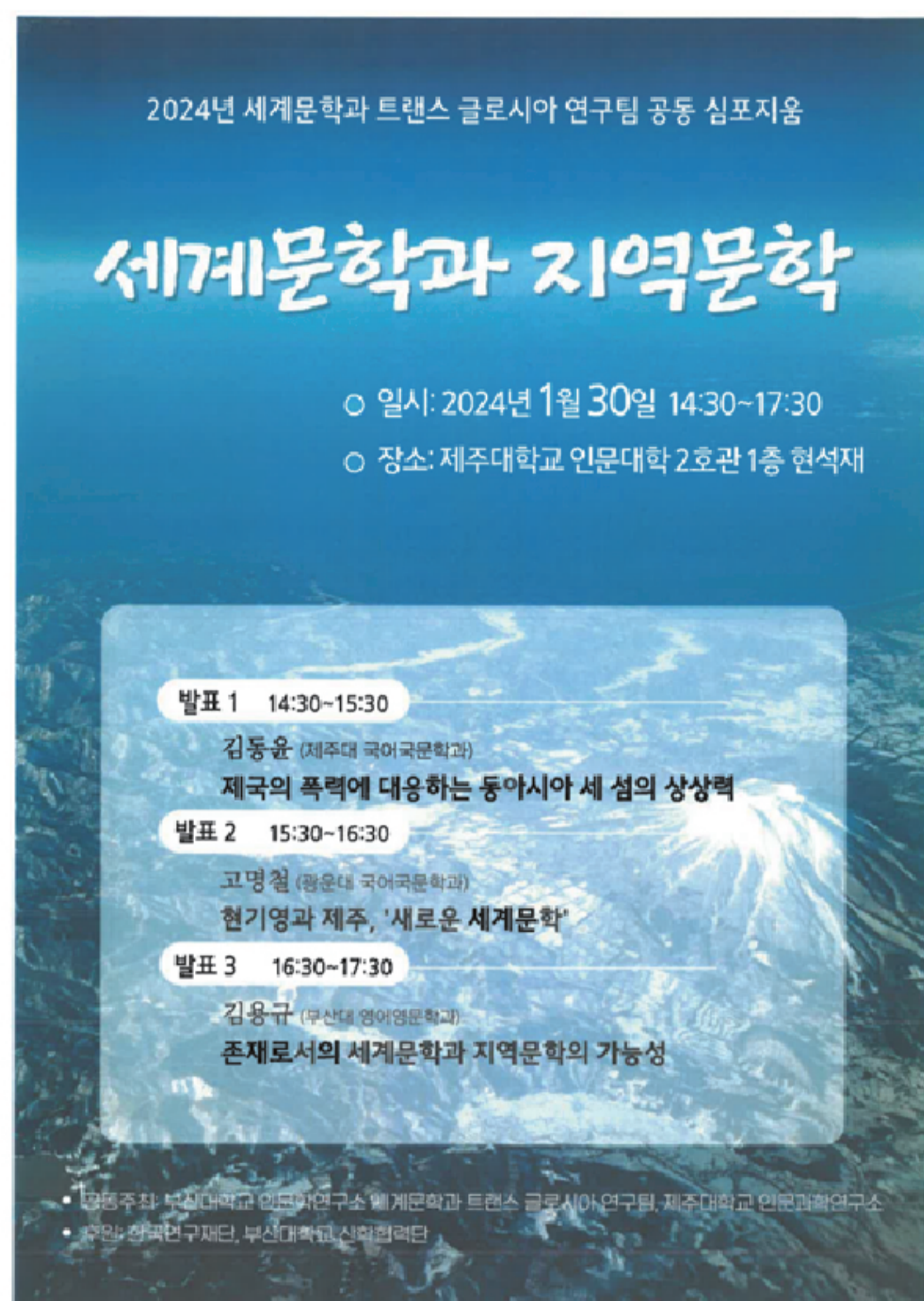
이번 뉴스레터는 2024년 여름호로, 6월까지 있었던 연구소의 활동을 요약 하고, 저역서와 논문을 통해 업적을 낸 인문학연구소 구성원과 인문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뉴스레터가 인문학연구소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개별적인 '뉴스'를 전하는 동시에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관계성을 전하는 '레터'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효석 인문학연구소 소장)



02 | 연구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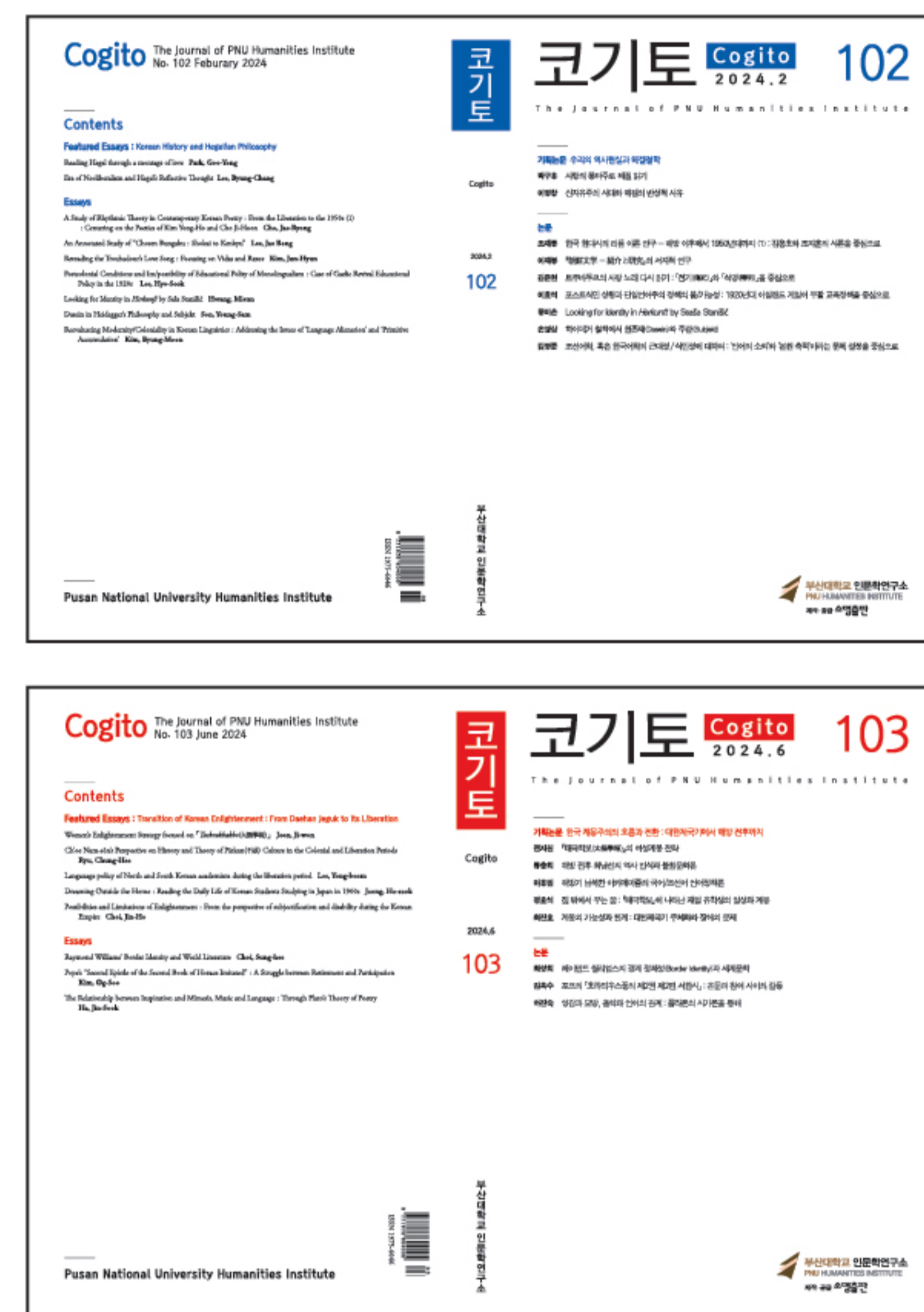
1. 2024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 공동 심포지움 개최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에서 제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움 “세계 문학과 지역문학”을 통해 세계문학과 지역문학의 존재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졌다.



3. 학술지 『코기토』 102호·103호 발행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등재학술지 『코기토』 102호(2024.02.28.)와 103호(2024.06.30.)가 발행되었다. 102호의 기획주제는 “우리의 역사현실과 헤겔철학”이고, 103호의 기획주제는 “한국 계몽주의의 흐름과 전환: 대한 제국기에서 해방 전후까지”이다.



2. '2024 희망의 인문학: 기술변화와 삶-사회의 변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동구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024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다. '희망의 인문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매해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올해는 “기술변화와 삶-사회의 변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문학, 언어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4. 창원특례시와 '인문도시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2024년 4월 25일 창원특례시와 창원시민의 인문학 교육 확대와 우호 증진에 관한 '인문도시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해 인문학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인문학과 문화를 접목한 강의, 체험활동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 서 명 : 멀리서 읽기- 세계문학과 수량적 형식주의

역 자 : 김용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 판 사 : 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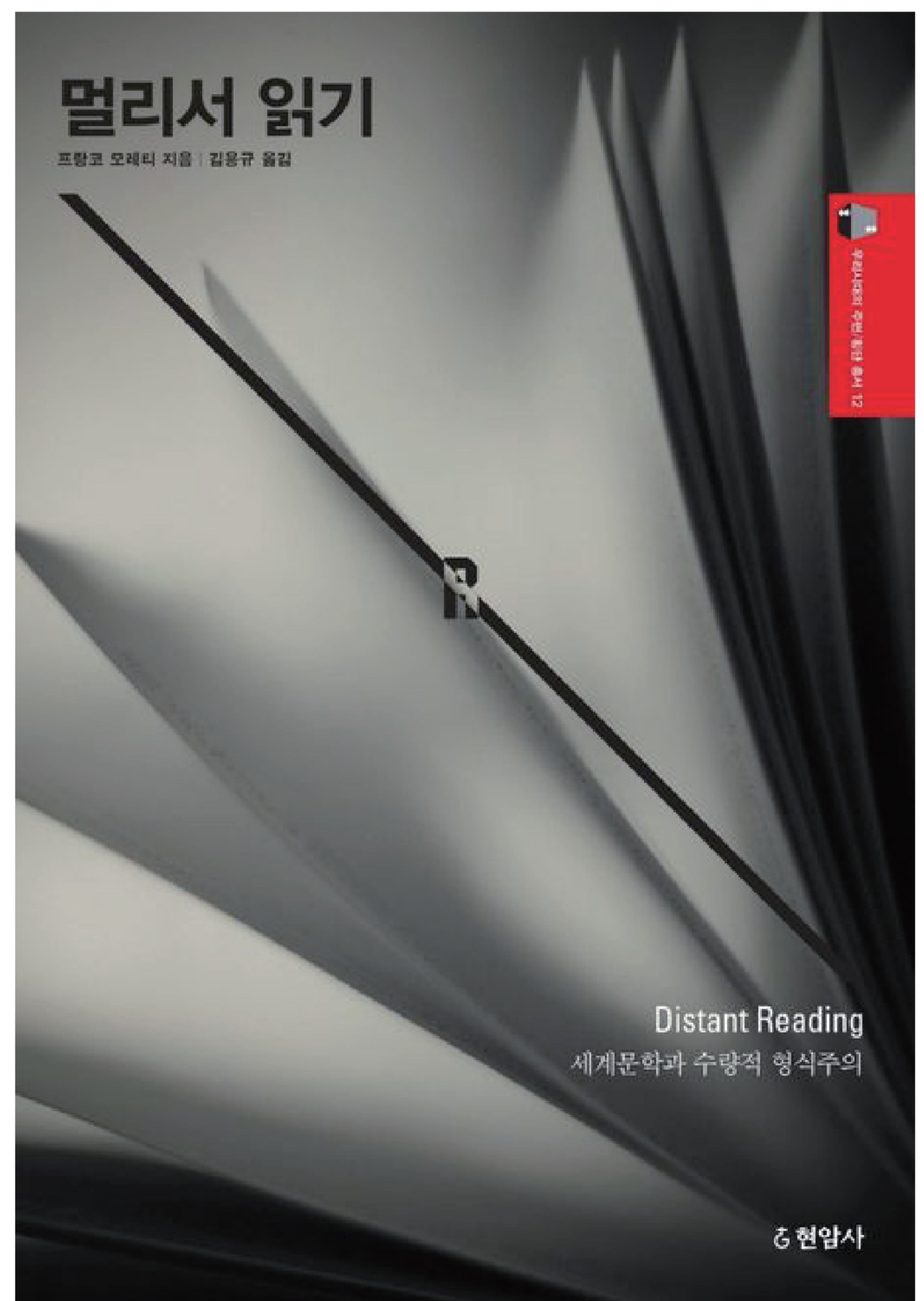
출판일자 : 2021년 2월 28일

“꼼꼼한 읽기는 정전을 뛰어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꼼꼼한 읽기는 신학적인 활동(매우 엄밀하게 선별된 극소수의 텍스트들에 대한 극히 엄숙한 읽기)인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악마와의 작은 계약이다. 즉, 우리는 텍스트들을 읽는 방법을 안다. 이제는 텍스트를 읽지 않는 방법을 배우자. 멀리서 읽기 말이다.” 이 말은 『멀리서 읽기』의 선언과도 같은 말이다.

『멀리서 읽기』는 문학연구를 공간, 지리, 수량적 분석, 네트워크 연구, 디지털 인문학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21세기 문학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작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근대 유럽 문학에 위대성을 부여했던 조건들이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일어난 유럽 근대문학의 지리적 변동에 대한 해안, 외래적 형식과 지역적 소재 간의 타협으로서의 세계문학이라는 도발적 문제 제기, 진화론과 세계체제론을 문학의 형식과 그 역사적 전개와 결합하는 놀라운 상상력, 살아남은 소수의 문학과 읽히지 않고 사라져버린 다수의 문학으로 이루어진 도살장과 같은 문학장에 대한 예리한 천착, 『햄릿』과 『홍루몽』에 대한 놀라운 네트워크 분석,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소설의 전 유럽적 확산과 20세기 미국 영화의 전 지구적 확산에 대한 분석, 7,000권에 이르는 영국소설 제목의 다채로운 분석을 비롯한 방대한 수량적 자료 분석 등은 문학 이론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예증한다. 이 책으로 프랑코 모레티는 문학비평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13년에 미국 서평가 협회의 최우수 문학비평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책이 문학연구자들의 집단적 연구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모레티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2000년에 스탠포드대학에 <소설연구소 Center for the Study of the Novel>를 창설하였고, 2010년에는 그의 제자이자 디지털 문학연구자인 매튜 조커스와 <스탠퍼드 문학랩 Stanford Literary Lab>을 공동 설립한다. 이 제도들은 미국 내의 뛰어난 연구자들을 끌어들이어 지난

20년간 문학연구는 물론 인문학연구 전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그 성과의 일부가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논쟁과 얘기들이 무성하다. 하지만 그 무성한 얘기들 속에 인문학의 근간인 비판과 해석의 정신이 들어있는지는 의문이다. 『멀리서 읽기』의 의미는 문학연구와 디지털인문학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는 데 있다.



[논문 소개]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경계 정체성(Border Identity)과 세계문학

최성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 유물론자'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웨일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지는 의미는 진지한 비평의 영역에서 간과돼 오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과 사상에서 웨일즈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그의 언어관 및 문화이론뿐 아니라 세계문학에 대한 입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윌리엄스의 정체성에 대해 '경계 정체성'(border identity)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데, 이는 대략 2가지의 경계를 오가는 그의 체험과 의식을 드러낸다. 하나는 웨일즈와 영국의 경계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과 연관된 시골과 도시의 경계이다. 윌리엄스의 경계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저작들을 읽을 때 기존의 관점과 달리 통합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즉,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측면과 그의 웨일즈인으로서의 의식을 접목해서 살피는 관점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회복할 때에야 '세계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과 견해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 논문에서 윌리엄스의 '경계 정체성'이 그의 세계문학에 대한 입장과 이어지는 사유의 과정을 탐구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주된 개념 중 하나인 '느낌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가 언어와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느낌의 구조'는 근래 들어 윌리엄스의 독창적 개념으로 더욱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아직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느끼는 경험의 형태를 규명하려는 윌리엄스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개념은 느낌/감정과 생각/사유의 이분법,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여기서 '느낌'이란 말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며, '구조'라는 말은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더 체계적이고 고정적인 구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연속적이고 집단적이지만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의 방식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느낌의 구조는 경험의 현재성, 즉 '현재적인 실행적 의식'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는 윌리엄스가 웨일즈인으로서 민족주의적 전통과 자신의 체험의 괴리에 대해 사색하면서 '같은 전통을 물려받더라도 새로운 세대는 그것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체험하면서 그들 나름의 느낌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통찰을 얻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전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서의 느낌의 구조는 기존에 사회적인 것이라 간주되는 틀 속에서 잘 포착되지 않아 자칫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이 윌리엄스의 지론이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사회적인 것 속에 이러한 '개인적인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느낌의 구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재적 경험의 형태를 사회적인 것으로 조명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웨일즈와 잉글랜드, 시골과 도시 사이에 걸쳐있는 윌리엄스의 경계 정체성은 그 자체로 기존의 모더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느낌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런 자신의 느낌의 구조를 따라 윌리엄스는 영어를 표준화하려는 '표준영어'(Standard English)와 '캠브리지 영문학' 체계를 비판한다. 그는 '표준영어'는 영어를 표준화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언어에 사회적 위계를 부여하는 계급언어이며 따라서 실제적인 언어의 물질적 흐름과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한편, '캠브리지 영문학'은 애초 영문학이 확장되고 독일 유래의 문헌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1차 세계대전 후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으나 아울러 도시적 문화에 기반하며 실제의 삶 및 관계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더니즘과 밀접히 연관된 데서 오는 한계를 띤다. 그가 보기에 모더니즘은 낭만주의와 다를 바 없이 문학 자체의 언어 개념을 만들어 내며 '문학적 언어'라는 환상에 젖어있는 하나의 "차가운" 체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윌리엄스는 일반적/일상적 삶과 거리가 없는, 구체적 경험의 복잡성이 담겨지는 문학을 꿈꾼다. 다시 말해, 아직 사회적 형성물로 자리잡지 못한, 가시화 되기 이전의 '느낌의 구조들'을 드러내는 언어적 작업물로서의 문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더니즘 전통에 안착한 '문학'이 아니라, 객관화된 언어의 물질적 구성이자 사회-윤리-정치적 의식 활동으로서의 '글쓰기'이다. 윌리엄스가 'literature'라는 말 대신 'literacy'라는 말을 대체 사용하는 것이나, 당시 등장하던 글쓰기의 새로운 매체들(이른바 '뉴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것이나, 글쓰기가 구어적인 것과 맺는 새로운 관계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세계'문학을 얘기할 때, 그것은 자본주의에 의해 매개되는 소외된 세계로서의 '세계', 즉, 세계없음(worldlessness)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응답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문학은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문학의 '거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느낌의 구조들과 연동하며 그것들이 생생하게 배어있는 지역과 일상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